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용우

도시는 추억이다

지구촌시대, 정보화시대가 이룩한 최대의 성과는 지리적 경계개념의 소멸이다. 지리학자들은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기술의 무한대 확장으로 사람들은 웹사이트를 통하여 수시로 국경을 넘나들고 있으며, 이러한 습관은 실제로 물리적 국경을 유유히 넘어 관광문화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문화야말로 향후 가공할 문화경제를 가능케 하는 요소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 간 국경이 실제로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무시로 넘나들던 습관과 이질 문화에 대한 동경은 과거 그토록 견고하였던 심리적 국경선을 훌륭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경개념의 전환이야말로 과거 인종적, 종교적, 계급적 차별을 소멸시키는 촉매제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가 새로 쓰기 시작한 문화경제라는 용어는 도시문화, 도시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도시는 높은 인구밀도와 자원 과다사용으로 인하여 문제의 중심으로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는 오히려 거꾸로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므로 오늘날 도시행정가들은 도시의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도시의 문제점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도시문화를 가꾸어 가고 있으며, 그것은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리고 도시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건축미학의 활발한 도입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된다는 사실이다.

한국 대도시의 건축미는 어떠한가? 도시는 단순히 사람만 많이 사는 곳이 아니다. 도시는 도시를 구성하는 건축물이 결정적이다. 우리가 아름다운 파리를 기억하는 것은 강이나 땅이나 도로가 아니라 도시의 건축물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물이 배제된 도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만큼 건축물은 도시의 질을 구성하는 결정적 증거이자 도시에 대한 추억 만들기와 직접 관련이 있다.

대다수의 역사적 도시들은 형성 초기부터 계획을 만들고 도시가 필요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축적해왔다. 그러나 한국처럼 식민지시대를 거치고 전쟁을 겪으면서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팽창해온 도시들은 건축미학은 고사하고 그 유사한 접근조차 허락되지 않은 채 성장해왔다. 서울은 엄청나게 크지만 크다는 것 이외에 볼 것이 없고,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도시들도 서울처럼 덩치만 키워왔지 미학적 고려는 전혀 꿈도 꾸지 못하였다. 그야말로 문화적 명소 하나없이 도시가 진화하고 존재해온 것이다.

오늘날 도시미학이나 도시의 질을 논하는 첫째 요건은 건축미와 문화적 명소, 즉 도시를 구성하는 아이콘이다. 건축적 명소는 다수의 문화시설물이 포함된다. 파리의 에펠탑이나 루브르박물관, 퐁피두센터, 런던의 데이트갤러리와 대영박물관, 뉴욕의 구겐하임과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스페인 바스크지역의 빌바오구겐하임 미술관 등이 가장 대표적인 건축적 아이콘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문화관광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건축미에 에너지를 쏟아 붓는 지역은 올림픽을 계기로 도시발전을 극대화시키는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지역을 들 수 있다. 중국정부는 기왕 올림픽을 치르면서 다양한 건축적 명소를 만들었다. 미술가이자 건축가인 아이 웨이웨이가 설계한 올림픽주경기장과 스위스의 건축가 헤르조그 드메롱의 수영장, 렘 콜하스가 설계한 중국 중앙방송인 CCTV건물, 그 밖에 일본 건축가인 안도 타다오와 시게루 반, 아라타 이소자키, 미국의 아이엠 페이와 리베스킨드 등이 남겨놓은 건축물들은 향후 베이징과 상하이의 미래를 명소화 하는 기념비적인 것들이다.

아랍 에미레이트의 맏형 격인 아부다비의 경우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하고 있는 아부다비 구겐하임을 비롯하여 루브르박물관까지 유치하여 가히 건축물 천국을 방불케 한다. 작년까지 건축물 붐으로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두바이도 이에 지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도시의 팽창을 경험하면서 도시미학을 가꾸는 건축물의 절대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한다. 여기에는 주거시설인 아파트의 치장도 물론 포함된다. 한국 대도시의 건축물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냥갑 같은 회색 시멘트의 연속이며, 잠을 위한 베드타운(bed town) 역할만 하는 아파트문화의 개선이야말로 시급한 개선과제이다. 건축미학은 서울을 벗어나 지방대도시로 가면, 그리고 지방대도시를 벗어나 시골로 가면 더욱 심각해진다.

각 지역별로 시행중인 각종 대형 문화프로젝트들에 대한 재검토를 비롯하여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 재검토도 시행되어야 한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도시에서 태어난 자들은 불행하게도 추억이 없다고 말한다. 이제는 도시가 추억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 책임은 도시를 만드는 자들과 도시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있다. 도시와 추억 사이의 경계가 아름다운 도시, 그것이 바로 미학적 도시인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상임부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설

한전 판매부문 분할 민영화 시기상조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나주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기업인 한전의 판매부문을 분할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용역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다.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를 분리해 민영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전의 판매부문이 분리될 경우 나주혁신도시가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전은 나주혁신도시의 성장엔진으로 꼽히는 중추 공기업이다. 연간 예산이 30조원에 육박하고 본사 근무 인원만 1425명에 달하는 매머드 공기업으로 단순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만도 엄청나다. 특히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DN, 한전KPS, 전력거래소도 함께 이전해 나주혁신도시를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로의 육성이 가능해 진다. 한마디로 한전은 나주혁신도시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공공기관인 것이다.

하지만, 한전에서 판매부문이 떨어져 나갈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 판매부문은 전력산업에서 발전, 송·배전과 함께 3각 축을 이루고 있으며 한전 인력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발전부문은 이미 분리된 상태여서 판매부문마저 분할된다면 한전의 위상과 규모는 크게 줄어든다. 당연히 나주혁신도시도 '속 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판매부문이 민영화될 경우는 전기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 진다. 현재 원가 이하인 전력요금 체계에서는 민영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판매부문의 분할은 국민생활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이를 의식해 지난 16일 "판매부문의 분할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추 국가기간산업인 전력산업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 특히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판매부문 분할과 같은 성급한 결정으로 나주혁신도시 사업이 차질을 빚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광주시 간부들 '의회 경시' 바람직하지 않아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윤봉근 의장의 임시회 발언으로 빚고 있는 갈등양상은 여러모로 모양새가 좋지 않다. 먼저 윤 의장이 광주시정 운영에 대해 지적한 것을 두고 시 간부공무원들이 의장의 발언을 반박한 것은 의회에 대한 경시 내지는 시장에 대한 과잉 충성으로 비칠 수 있다.

윤 의장이 지난 20일 집행부를 향해 한 발언은 의장으로서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상무소각장 이전과 야구장 건설,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 관광레저타운 조성 등 굵직한 지역현안 사업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없이 일방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발표돼 아쉽다고 지적한 것은 이미 언론에서도 적시한 사항들이다.

이를 두고 간부공무원들이 "강운태 시장이 광주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데, 이 같은 노력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유감이다. 집행부와 의회 간에 조정기능을 해야 할 의장이 그런 발언을 한 데 실망스럽다"고 반박한 것은 배경이야 어찌됐든 과민반응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의회는 견제와 감시를 하는 기구이지 조정하는 곳은 아니다. 집행부가 지금도 타성에 젖어 의회를 '협조자' 내지 '조정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물론 윤 의장이 강 시장 체제가 출범된 지 20일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임기응변식 행정'이라고 주장한 것은 상생 측면에서 섣부른 감은 있다. 그렇더라도 간부공무원들이 집단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를 띤 것은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현재 광주시의 경제상황은 최악의 위기국면에 놓여 있다. 중견 건설업체들의 법정관리가 줄을 잇고 하청업체의 부도라는 악순환을 맞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광주시와 의회가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소통'이 강운태 시장의 취임 일성이란 점을 스스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의료 칼럼

김재봉

안전한 여름철 시력교정수술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병원을 찾는 이들이 많다. 건강검진이나 성형수술, 시력교정수술 등 미뤘던 수술을 하기에 적기이기 때문이다. 어떤 분야든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자신에게 맞는 시술법을 찾아야 하고, 또한 그 분야에 맞는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최근에는 의사 면허는 있으나 전문의를 따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분야를 진료하는 병원이 있기 때문이다.

시력교정수술은 흔히 알고 있는 라식, 라섹 그리고 장비와 방법에 따라 마이크로 라식, 인트라라식 최근에는 iFS라식, 안내렌즈삽입술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안전하고 정확한 시력교정을 위해 수술의 방법도 진화됐으며 그만큼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부작용이 없고 안전한 라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술 전 체크해야 할 중요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성공적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시력교정수술(ICL/라섹/라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이 얼마나 정확하고 철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근에는 더 안전한 수술을 위해 병원마다 최첨단 검사장비들을 많이 들여왔다. 그 중 ORA(각막생체역학 분석기)는 각막물리적기능 분석을 통해 시력교정수술 전 각막의 탄성도, 점성도, 순수안압 등을 정확히 분석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각막확장증, 각막이영양증의 합병증 발생인자들을 사전에 검출해 예방이 가능한 첨단 장비다.

그 외 다른 최첨단 장비들로 얼마나 철저하고 정확하게 검사를 해주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근 매스컴에 문제가 제기돼 왔던 아벨리노 각막이영양증을 가진 환자는 수술을 받을 경우 각막에 상처를 주게 돼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벨리노 DNA 유전자 검사를 시행,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해 보다 안전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눈 특성에 맞는 맞춤수술이 가능한 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최근에는 라식수술중 각막의 절편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개개인의 눈의 곡면 모양에 맞춰 각막의 절편을 보다 얇고 정확하게 만드는 레이저도 등장했다.

시력교정수술에 있어 첨단 검사장비와 첨단 수술 레이저 장비를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숙련된 전문 의료진에 의해 수술이 진행되는지도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다. 철저한 사전검사 결과를 통해 수술 종류와 각막절삭 양 등을 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성공적인 수술을 위해서는 많은 수술경험과 노하우가 있는지, 공인된 인증서가 있는지, 수술 전·후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지도 체크해야 하는 중요 사항이다. 안과 뿐만 아니라 수술을 동반하는 모든 치료에 대해서는 환자 자신이 꼼꼼하게 병원과 의료진에 대해 따져보는 수고가 필요하다.

〈밝은광주안과 원장〉

기 고

최현주

시민의 행복은 공직자로부터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한국을 찾았던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베스트셀러 '개미'에 나오는 에피소드 한 토막을 소개한다.

어느 날 여왕개미가 개미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개미들은 머리만 조아릴 뿐 뭐라 답을 못하고 있던 차에 한 개미가 용감하게 나섰다. 서슴치 않고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개미에게 한정된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삶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사실,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하든 간에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여왕개미는 다시 물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냐?' 그 개미는 주저하지 않고 '현재'라고 답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현재에만 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질문이 이어졌다. 그러면 현재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그 개미는 '놓인 일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여왕개미는 매우 흡족했다. 삶의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며, 가장 중요한 순간은 현재이고, 현재에 해야 할 일은 앞에 놓인 일에 몰입하는 것, 아주 중요한 지적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시도 놓쳐선 안 될 지침이다.

민선 5기가 시작됐다. 공직자는 '시민들이 행복한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시민이 행복하지 않고서야 공직자가 하는 일의 가치는 퇴색되고 말 것이다.

공직자는 크게 두 가지의 신분을 동시에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분임과 동시에 근로자로서 직업인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는 그 두 가지 신분에 걸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우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솔선수범해 시민에게 봉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이른 아침에 청소를 하고 각종 국제대회나 전국적 행사에 참여하는 등 시정 일선에서 맡은 업무 외에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민원현장에서 온갖 일에 솔선수범 앞장서야 하는 본분과 의무를 갖고 생활한다.

물론 공직자도 직업인이다. 충분하지 않는 급여로 가계를 꾸려나가야 하고 육아와 자녀교육을 비롯하여 자신은 물론, 가족의 건강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생활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공직자는 공복으로서의 신분과 생활인으로서의 신분 중에서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와 시민이 행복을 느끼는 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람을 찾아가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이다.

공직자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할 때, 모든 가치기준은 시민의 행복에 있음이 자명하다 할 것이며, 기왕 해야할 일이라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는 게 자신도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쯤에서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지적했던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행복'이다. 그 행복은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며, 현재 놓여진 일에 몰입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 공직자들은 자신이 해야 할 현재의 일에 매진해야 한다. 현재의 순간에 충실 한다면 공직자 자신은 물론 시민의 행복까지도 얻어낼 수 있다.

특히, 공직자 개개인의 노력과 솔선수범이 시민에게 전달되어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 공직자는 더 많은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無等鼓

여성비하

'성희롱당' '성(性)의사당'이란 딱지가 괜히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다. 잊을 만하면 재발하는 '성희롱' 파문은 국회의원들의 삐뚫어진 여성관을 여과없이 드러내 사회적 이유가 됐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여성비하 발언 논란 이전에도 정치권에선 성희롱 추문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인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다. 최 의원은 저녁 식사 자리에 동석한 여기자를 껴안아 거센 파문을 일으켰다. 최 의원은 "술에 취해 식당 주인인 줄 알았다"고 변명하다 도리어 화를 키웠다. 최 의원은 당이 징계절차를 진행하자 탈당했다.

박계동 전 국회 사무총장은 2006년 술집 여종업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돼 논란을 빚었다.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는 2007년 한 일간지의 연재소설을 거론하며 성적인 발언을 해 곤욕을 치렀다.

정몽준 전 대표도 2008년 18대 총선 당시 동행 취재한 여기자의 뺨을 때렸다가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2003년에는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여야 대치 상황에서 상임위 위원장석을 점거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을 빗대 "남의 집 여자가 우리 집 안방에 와서 드러누워 있으면 주물러 달라는 얘기"라고 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치권에서 잇따르는 성희롱 내지 여성비하 발언사건은 정작 의원의 자질을 물론이거니와 국격(國格)마저 흠집을 내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강용석 의원 사건이 터지자 곧 바로 재명결정을 한 데 이어 21일에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공식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정작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강 의원 자신이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원 직을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국회의원이 의원 선서 전에 성교육부터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가 갈수록 더 자명해진다.

/김주정 여론매체부장 jjnews@

학생 농촌체험 프로그램 표준교재 보급했으면

청소년 교육이 이제는 교과서를 탈피해 체험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체험이 낙농분야 아닌가 싶다. 낙농체험을 하는 학생들은 젖소에게서 우유를 짜고, 젖소에게 먹이를 주며, 짜낸 우유로 치즈도 만들고, 각종 유산균 발효유도 직접 실습 삼아 만들어 보기도 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낙농업계에서는 아예 낙농 산업의 특성을 살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학교 우유급식 인식 개선과 축산물 교육현장으로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낙농은 물론이고 다른 대표적인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해 거기에 맞는 적절한 표준 교재를 만들어 농가에 보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목장체험이 단순히 낙농업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들에게 살아 숨 쉬는 교실로 손색이 없기 때문에 식품의 중요성과 먹을거리 생산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교육당국의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주정완·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